

## 1356년전 왜 영취산에 산문 열었나

### '통도사 개산대제' 문화축제로

산이 열린 날, 연화장 세계 펼쳐진 날, 영취산 자락도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불보살을 찬탄하는 듯했다. 지금으로부터 1,356년 전 자장율사가 산문을 연 것을 기리기 위한 개산대제가 열리는 통도사를 찾았다.

이미 통도사를 찾은 사람들은 경내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이 바로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밟고 통도사를 창건한 날이다. 수많은 불제자의 정진과 수행의 중심이 되어온 통도사가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시원을 묻는 날. 해동 화엄의 초조 자장 율사는 '왜 이곳에 통도사를 창건했을까' 하는 의문을 마음 가운데 세우게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통도사는 너무 볼거리가 많았다. 개산제를 축하하며 모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개산대제는 24-25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첫날, 청소년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열린 사생대회에는 초·중·고등학교 70여명이 도량 곳곳에서 푸른 하늘과 단풍을 배경으로 절집 풍경을 화폭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25일 열린 사생대회 시상식에서 통도사 방장상인 대상의 기쁨을 안은 구효정 양산여중 3학년 "만세루를 그렸는데 단청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며 "단청을 하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찰에 숨어 있는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통도사는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인재를 키우는 일로도 개산조를 기렸다.

아이들이 그동안의 세계에 몰입해 있는 동안, 대웅전 옆으로는 합장한 채 긴 줄을 이룬 불자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사의 가사를 천천히 읽기 위해서

### 부처님·자장율사 가사

### 천견위해 줄 선 불자들

### '남장사 괘불탱 특별전'

### '고승 선묵전' 도 볼거리

였다. 황금빛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바랜 금란가사에서도 불법의 찬란한 빛을 기를 마음으로 끌어안으려는 표정들이 자못 엄숙하다. 또한 부도전에서 울려진 천다제에서는 개산 이래 창정가풍을 일구어온 선지식들이 울려진 다함이 술술을 그윽하게 했다. 이 밖에도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법전, 성보박물관 등에서 펼쳐진 '남장사 괘불탱 특별전', 석정 스님 기증 '고승 선묵 특별전', 본 말사 유치원생 재물잔치, 합창제에서도 개산조의 높은 뜻은 한마음으로 찬탄되고 있었다.

울산에서 온 이경애 불자는 "아이가 통도



◇개산 이후 1356년 동안 통도사의 창정가풍을 이어온 자장율사를 기리는 천다제가 부도전에서 마련됐다.

사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함께 오게 되었다"며 "개산대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멋진 전시와 공연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불교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 절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가 단순한 의식을 넘어 갖가지 산사음악회나 학술세미나, 전시 등의 문화행사와 접목시키는 것은 이제 불교 행사의 보편적 형식이 되었다. 대중 속에 거둔 나라는 불교계의 노력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25일 문화사, 은혜사, 금산사 등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개산대제를 치렀고, 감사는 11월 3-4일 <월인석보>의 문화사적 의미라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자비의 쌀 모으기, 추모제 등의 행사

를 봉행했다. 이로 볼 때 통도사의 개산대제라 해서 그리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순간 통도사를 찾은 일반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참여한 불자들에게는 평생 기억 속에 자리할 생애 최초의 경험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300여 년 세월을 지켜온 통도사의 웅장하고도 고아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개산대제는 그 순간을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가슴 가득 안겨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사가 산문을 연 까닭이고 오늘 그곳에 접이 있는 이유가 아닐까.

통도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ia.com

### "대중과 개산의 기쁨 나눕니다"

### 원불교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1356년 전 자장 율사께서 통도사를 창건하신 뜻을 기리고 찬탄하는 것, 그것이 개산제의 의미입니다. 이번 개산대제는 예년과 달리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행사로 준비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10월 21일 영축예술제로 시작으로 부도천다제, 괘불탱 특별전, 고승 선묵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개산조의 뜻을 기리되, 개산제라는 의식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불자뿐 아니라 가을의 정취를 찾아 통도사를 찾은 사람들에게도 산사의 멋과 여유를 안겨주기 위해 기출인 세심한 배려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법문만큼이나 불교문화나 예술작품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별하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개산대제 행사 일정 내내 불자들의 함께 한 스님은 "도량 곳곳에서 마주치는 불자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여유롭고 밝아 보였다"고 기뻐했다. 스님은 그 밝은 표정을 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통도사의 또 다른 사명을 새삼 느낀다고 한다.

"통도사가 계을 근본도량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와 복지 포교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자장 율사의 개산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불사"라는 현문 스님의 말씀은, 통도사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개산대제를 보기위해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의 모습.

### 개산대제(開山大祭)란 창건일이나 개산조 입적일 여는 법회

불가에서 개산이라 함은, '산문'을 여는 일, 즉 절의 창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산대제란 절의 창건일을 기념하여 여는 큰 법회를 말한다. 또는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입적한 날을 기리는 입적기일법회를 뜻하기도 한다. 한 종파나 사찰을 창건한 스님을 존경하여 개산조 또는 개조라 하여, 그가 입적한 날을 기념해 그 종파나 절에서 해마다 성대한 법회를 갖는 것이다.

본산(本山) 일컫는 사람을 개산조라고 하여 구별하고, 절을 창건할 때의 대시주(大施主)나 말사(末寺)를 세운 사람을 개기(開基)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해인사는 창건주 순응 스님을, 통도사는 자장 스님을, 범어사는 의상 스님을 개산조라고 한다. <진실적설> 법문에 보면 "보조는 조계수선사의 개산조 조이다(普照師 爲曹溪修善社 開山初師)"하여, 보조 스님이 조계수선사의 개

산조임을 밝히고 있다. 사찰의 개산조 사를 모셔 둔 당을 개산당(開山堂)이라고 하는데, 조사당, 조당, 영당, 영실 등으로도 불린다.

최근 들어 개산대제는 단순한 의식법회의 차원을 넘어, 개산조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제를 비롯해 전시회, 음악회 등 산중의 모든 대중과 불자, 지역인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열린문화행사로 진행된 개산대제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참했다. 사진은 통도사 본말사 유치원생들의 재물잔치.

## 形形色色的의 燈 사바어둠 밝힌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등축제

가로 등불 꺼진 남산골 한옥 마을에 그보다 더 밝은 형형색색의 등(燈)들이 불을 밝혔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전통등연구회와 서울시월드컵추진단의 주관으로 23일-25일까지 서울 남산 한옥 마을에서 열린 '2001 지구촌 등 축제'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선 커다란 호들이등을 비롯해 월드컵 마스코트를 이용한 대형등, 목어등 등 불교의 전통등과 현대적인 미를 더한 장식등도 다수 선보였다. 또한 18m 길이의 중국의 용등을 비롯해 일본, 미국, 멕시코, 세네갈 등 8개국 3천여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등 축제에는 연일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 24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의 부모님께 인사 차 율라와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이경재 씨(충주시 흥덕구부부)는 "우리의 등이 이렇게 다양하고, 화려한 줄 처음 알았어요. 그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구촌 등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본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넣은 종등.



◇탑의 모양을 본뜬 탑등.



◇한복을 금계 차려입은 이경재 씨 부부가 열매 맺어듯 주렁주렁 달린 등터널에서 활짝 웃고있다.



◇여의주를 입에 운 용등.